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2년 4월 뉴스레터 vol. 52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채우고 비우고 공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 알쓸신장 지금, 새로운 장례를 실천하자
- 장례후기 재외동포의 든든한 벗
- 공간채비 이야기 공간채비에 찾아온 봄
- 숫자로 보는 채비 상조 서비스 회사는 믿을 수 있다, 13.9%
- 조합소식 2022년 연합회 정기총회 외

공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당고개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번지 일대를 말한다. 옛날 성황당과 ‘미륵당의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한자로 당현(堂峴)이라 한다. 이 일대를 가로지르는 하천도 당현천이다. 나는 이 동네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 동네를 처음 본 사람은 낯고 쓸쓸한 풍경에 적이 놀란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어?’ 이곳은 1960년대 농촌에서 상경한 가난한 이들이 불암산과 수락산 자락에 판자나 ‘부로꾸’로 열기설기 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달동네다. 홍제동 개미마을, 중계동 백사마을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개발 예정지이다.

당고개역 좌우로는 신점이나 사주를 봐주는 무당집이 즐비하다. 무당의 정식 명칭은 무속인(巫俗人). 한자로 ‘巫堂’이라 적기도 하지만 확실치 않다. 무당은 보통 여성 샤먼을 가리키는 말로 저마다 귀신을 섬기거나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한다.

몇 달 전 토요일 오후였다. 친구 몇 명과 당고개역 인근에서 낚시를 마셨는데, 한 친구가 “점 보러 가자”고 외쳤다. 그는 평소에도 술기운이 돌면 버릇처럼 점을 보자고 했다. 우리는 마지못해 뒤를 따랐다. 삼청궁, 일월당, 별하사주공방, 천웅신궁연주선녀, 감악산도사신령... 여러 곳을 일별하다 결국 커다란 붉은 글씨로 ‘귀’자와 ‘공보살’이라 쓰인 곳의 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이 문을 열었다. 공보살은 차분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로 낮은 문을 들어서자 신단이 보였다. 우락부락한 형상의 도깨비, 하얗고 긴 수염을 늘어뜨린 산신령, 오방색으로 단장한 아리따운 모습의 선녀들이 우리를 노려보았다. 우리는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친구가 먼저 나섰다. 그는 장성한 아들과 갈등을 빚었고, 사업이 어려워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공보살은 그의 생년월일을 물은 후 손때 묻은 사주풀이 책을 들춰본 후 커다란 부채를 와락 펼쳤다. 한 손으로 요령을 살살 흔들더니 눈을 감고 만트라를 중얼거렸다. 그러다 ‘촛락’ 소리를 내며 부채를 접었다.

공보살은 친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돌돌 만 종이를 손에 쥐고 지계를 진 노인의 형상이 보인다” 했다. 그러면서 “대주님(친구)은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땀 흘려 일하라”고 충고했다. 아들은 집을 떠나야 잘 살 팔자니 내보내라며 말년 운이 펼 테니 아무 걱정 말라 했다.

두 번째 친구는 칼을 품고 태어난 팔자라 했다. 칼을 만지는 의사나 군인, 요리사로 살면 편안할 텐데, 그렇지 못해 가는 곳마다 상사와 갈등이 생긴다 했다. 다행히 강한 사주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했다. 말에 칼이 들었으니 항상 조심하라 했다. 좋은 사주니 지금처럼만 살라 했다.

내 차례가 돌아왔다. 공보살은 대뜸 ‘용두사미’라고 질렸다. 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남 좋은 일만 하고 산다며 실속이 없다 했다. 사주에 재물이 없다 했다. 또 나더러 중 팔자도 아닌데 중노릇 하고 산다고 했다. 내가 가난한 ‘기러기 신세’인 걸 어찌 알았을까.

듣고 보니 세 사람 중 내가 제일 점괘가 좋지 않은 것 같았다. 기분이 좀 상한 내가 물었다. “어찌 나만 그리 팔자가 좋지 않습니까?” 차분한 눈빛의 공보살이 말했다. “남한테 나눠주고 살고, 홀로 사니 근심 걱정이 덜할 것이며, 큰 재물은 없어도 굶지는 않으니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지요. 뭘 더 바라세요?”

이후에도 친구들의 요청으로 몇 차례 더 공보살을 만났다. 그는 생각처럼 만나기 쉽지 않았다. 틈만 나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몸과 마음을 닦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당은 기도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자신이 모시는 신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그것을 게을리한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공보살은 또 이렇게 말했다. 이사, 애정, 이혼, 취업, 합격, 가족, 건강, 질병, 성공... 사람들은 대개 이런 이유로 점집을 찾는다. 그들은 손쉬운 해결책을 듣기 원한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자신의 생긴 모습대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을 나누면서 정성을 다해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다. 액운은 항상 탐욕과 함께 오는 법이라고.

무당과 도사가 정치권에 등장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광기와 야만에 맞선 합리와 이성이 승리해온 역사이다. 몰상식과 탐욕은 결국 자신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공보살의 말을 새기는 4월이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지금, 새로운 장례를 실천하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열기가 채 식기 전인 8월 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는 군 제대 직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충남 아산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50대 초반이었고 나는 스물세 살이었다.

토요일 밤늦은 시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행 차편을 알아봤지만 대중교통은 다 끊긴 상황이었다. 합숙하던 반장님의 도움으로 출퇴근 봉고차를 타고 부산으로 출발했는데 폭우가 쏟아졌다. 고속도로 곳곳이 통제되었고, 우회 도로를 이용해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밤 11시쯤 출발했음에도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다.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두루마기를 걸치고 입관실로 향했다. 연습에 참관한 시간은 20분 남짓.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 발인하고 화장한 후 봉안당에 모실 때까지 기억은 거의 없다. 3일장이라 하지만 내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을 한 시간은 만 24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던 아버지께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들었다. 임종을 보지 못한 것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 없었던 것도 후회되었다. 공장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후로 꽤 오랫동안 상실의 슬픔을 겪어야 했다.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야간근무가 힘들었다. 세월이 흘러 슬픔 감정은 거의 사라졌지만 후회는 남았다.

가까운 이와 이별했을 때는 무너진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 과정을 프로이트는 ‘애도의 작용’이라고 했다. 애도의 작용이 완결되어야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애도는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

이런 면에서 장례식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죽음을 맞이한 고인과 만남, 마지막 이별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의식은 다양하고 심오하다. 장례식은 고인의 사적인 죽음을 사건화하고 부고를 통해 사회화한다. 장례식장은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공간의 기능을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로 인해 화장 수요가 증가해 5일장을 넘는 경우가 많다. 시신을 안치할 공간마저 부족해 상온에 방치하는 비상한 상황까지 생겨나고 있다. 급하게 화장장 가동시간을 밤 10시까지 늘리면서 적체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수도권 상황은 여전하다. 장례식이 길어지면서 유족도, 장례업계 종사자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처럼 장례 프로세스가 비정상 작동을 하면 ‘애도의 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제대로 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 아버지 장례처럼 정신없이 흘러가는 짧은 3일장이 아니라 화장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과 함께 고인을 추억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조합이 운영하는 ‘채비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비록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장례대란’이 발생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장례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업계와 학계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장례에 대한 유족의 인식전환과 실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재외동포의 든든한 벗



나는 2008년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교육문제가 결정적이었다.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세 아이를 양육하기는 쉽지 않았다. 막대한 사교육비도 부담이었고,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걱정스러웠다. 고심 끝에 3D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이민을 선택하였다.

물설고 낯선 곳에서 타향살이가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대충 눈치로 알아듣고 서툰 영어에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겨우겨우 적응해 나갔다.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빠듯한 일상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연로한 어르신들이 마음 쓰였다.

캐나다에 정착한 몇 달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함께 사는 언니와 나는 “아버지가 딸들을 멀리 보내기 싫으셨나 보다”라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임종은 보지 못했지만 입관은 볼 수 있어 다행이었다. 유난히 정이 많고 딸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였다.

서울아산병원에 빈소를 차리고 ○○상조가 장례를 진행하였다. 장례식장 사용료와 음식값이 무척 비쌌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정장 유니폼을 차려입은 상조회사 직원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식사하는 조문객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돌리며 가입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주인 동생이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싶어 등 떠밀어 내보냈다.

그로부터 9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한국으로 향했다. 아버지 때 경험이 있어 그런지 부담은 덜했다. 이번에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장례를 맡겼다. 뒷돈과 리베이트 없이 정직하게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미리 가입해 두었다. 예의 바른 젊은 장례지도사들이 성심성의껏 진행을 도왔다. 도우미들도 친절하고 알뜰하게 서빙을 하였다. 장례를 마치고 정산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은 무척 놀랐다. 아버지 장례 때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은 외아들이다. 혼자 사는 것도 늘 마음이 쓰였고, 시부모 봉양도 걱정이었다. 두 분은 3년 전부터 중환자실과 요양병원 오가며 생활하셨다. 그러다, 급기야 올해 3월 22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번에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의뢰하였다.

비행기 편이 원활하지 않아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겨우 두 아들(둘째는 코로나 양성)과 함께 입국할 수 있었다. 남편은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해 멀리 문산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장례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랐다고 한다.

이튿날 시아버지 유해를 고양시의 한 수목장에 모실 수 있었다. 젊은 장례지도사는 5일에 걸친 긴 장례를 끝까지 함께 하였다. 남편은 감동하며 수고비를 내밀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두 번의 장례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치렀다. 앞으로도 장례가 발생한다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믿고 맡길 것이다.

나처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늘 고국에 있는 가족이 걱정이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의 장례는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장례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벗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성희 조합원



공간채비에 찾아온 봄



지난 3월은 총회의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움직이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과 사업은 지속해야 했습니다.

3월 중에 여러 단체의 총회가 공간채비에서 열렸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업과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공간채비는 줌과 유튜브를 다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찾아준 단체들이 총회와 회의와 세미나를 진행하는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차츰 잦아들 기미가 보입니다.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하게 모임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월 보다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모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채비가 세미나와 회의와 포럼을 잘 담아내길 바랍니다. 작고 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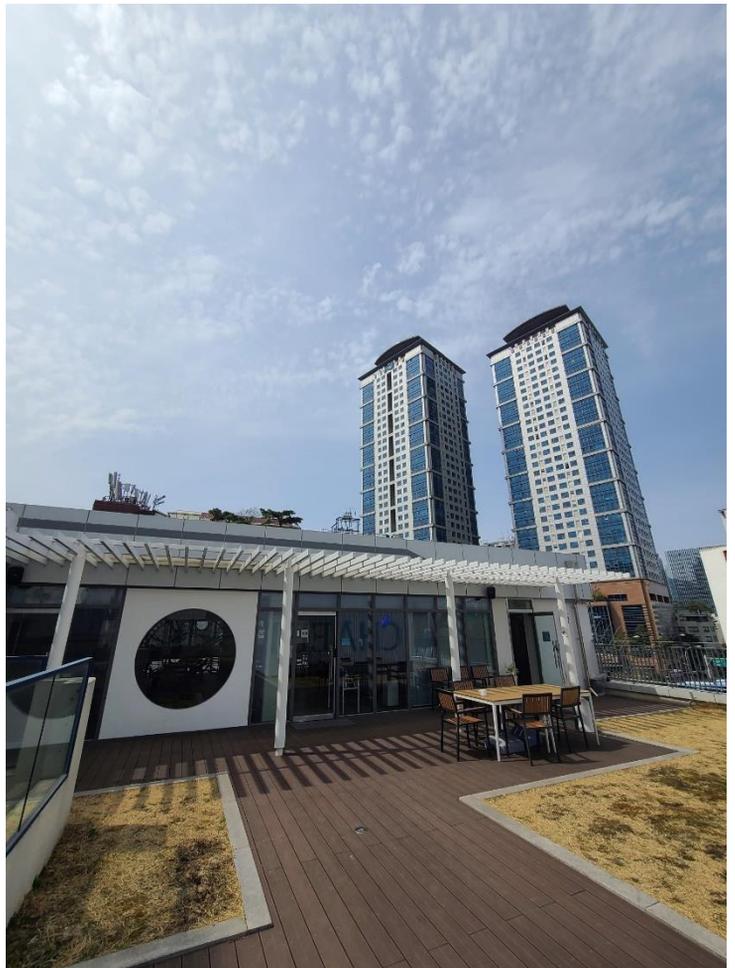
공간채비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3월 중순에는 일산 밝은교회 교우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채비가 진행하는 추모장례에 관해 지난 해부터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죽음에 관한 신학, 인문학 관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비에 와서 죽음을 돌보는 실제적 과정에 관해서 채비플래너에게 강의를 듣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회와 채비가 어떻게 장례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모든 사람의 공간 채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세미나와 사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아름다운 공간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거듭 일상을 타격하고 있지만, 항상 새로운 가능성과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간채비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곧 테라스에서 따뜻한 햇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 언제든지 찾아와주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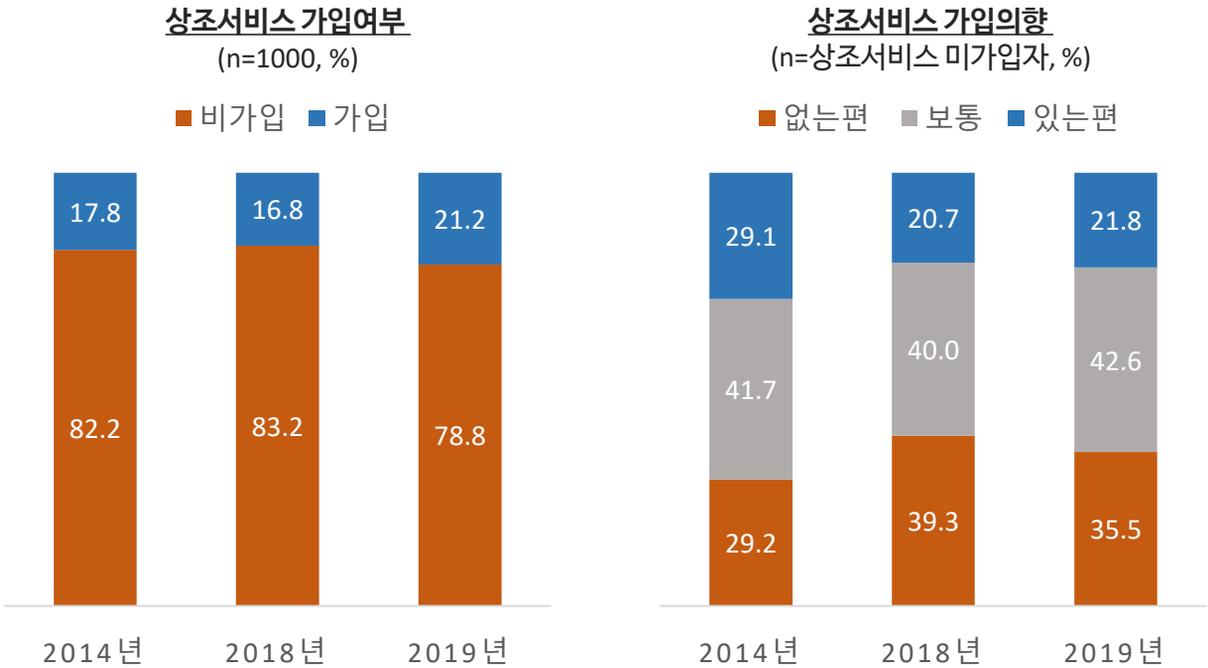
전승욱 | 공간채비, 추모장례 매니저



공간채비의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추모장례 매니저가 공간채비에서의 시간을 들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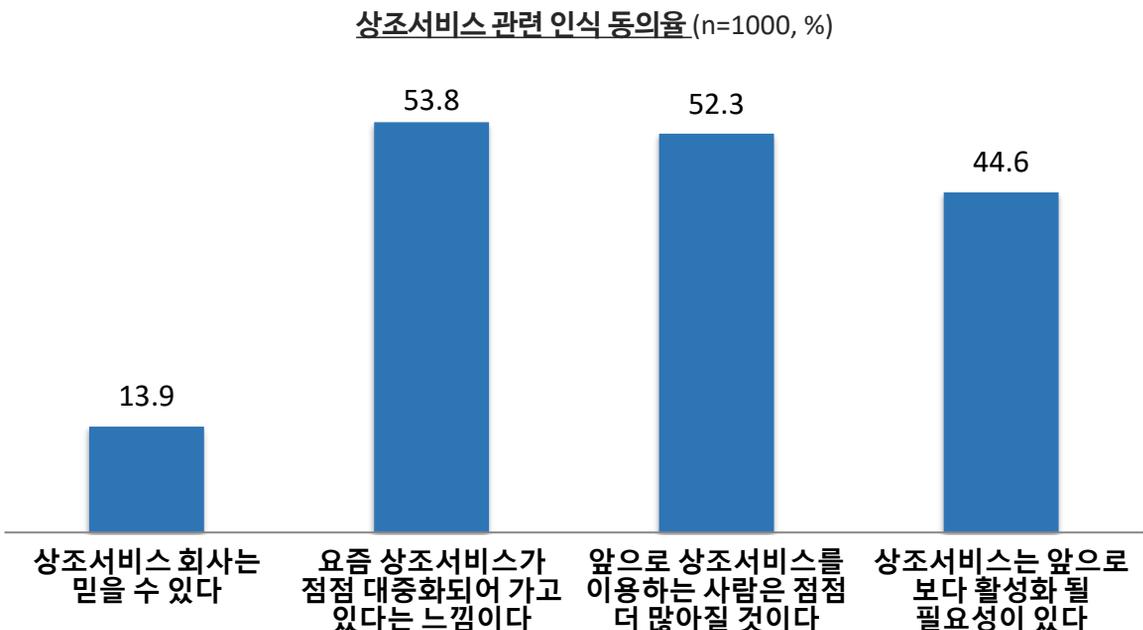
1 상조서비스 가입 현황

상조서비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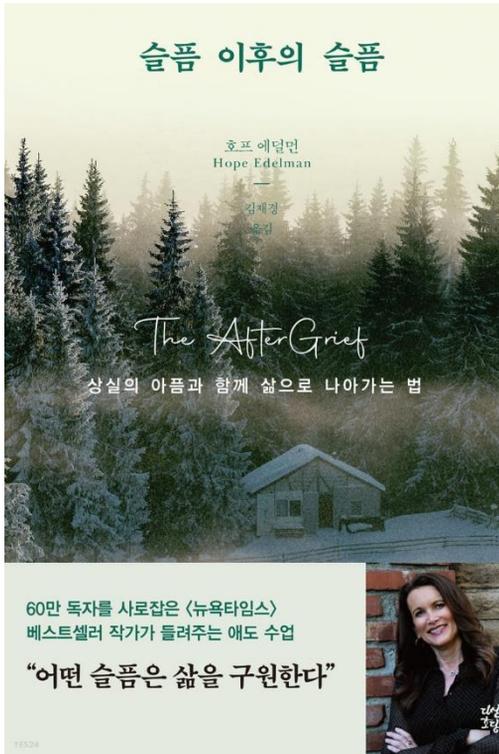
2 상조서비스 관련 인식

상조 서비스 회사는 믿을 수 있다 13.9%



*자료출처: 죽음 및 상조 서비스 관련 인식 조사, 2019. 전국 19~59세 성인남녀, 트렌드모니터

사랑하는 이를 잃는 순간부터 애도는 평생 계속된다



슬픔 이후의 슬픔

호프 에델먼 저 | 다산초당 김여환 | 포레스트북스

저자는 사랑하는 이와 사별로 인한 슬픔은 결코 사라지거나 끝낼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며 그것을 억지로 극복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래도록 표출되지 못한 사별의 아픔은 도리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저자는 10대 시절에 어머니를, 20대 때 아버지를 잃은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 겪어온 감정을 세심하게 돌아보며 자기 고백을 털어놓는 동시에 오래전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 100명 이상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상실을 들여다본다.

더불어 슬픔과 애도에 관한 다양한 학술 연구를 폭넓게 아우르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을지, 거대하고도 깊은 상실

의 슬픔을 끌어안으면서도 보다 건강하게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

온 힘을 다해 상실과 애도를 이해하려는 저자의 끈질기고도 절박한 사투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별로 인한 슬픔이 ‘비정상’도 ‘질병’도 아닌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특성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그 슬픔을 통해 성장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까지 전한다. 『슬픔 이후의 슬픔』은 2022년 코로나로 인한 거대한 상실의 흐름 한가운데 서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슬픔에 대한 깊은 통찰과 다정한 위로를 동시에 전해준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2022년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정기총회



3월 24일 회원조합 이사장, 이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연합회 회장으로 이창환 이사장이 선출되었으며 사업계획 발표와 여러 의안을 심의하고 승인했습니다.

올해도 한겨레두레는 코로나를 뚫고 전진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정기총회



지난 3월 10일, 공간채비에서는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

사업보고, 사업계획, 정관 변경, 신임 이사장 및 새 임원진 선출 등 여러가지 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에는 이창환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상현 이사장님, 유종오 감사님께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급격한 코로나 확진 세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조롭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2022년 충남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정기총회



충남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정기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서면총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코로나이전의 사진입니다)

지난 3월21~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 결과 대의원 42명 중 2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사업/회계 감사보고, 결산 보고, 사업평가 및 계획안 승인 등 여러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친교하고 논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강의 안내 ([신청링크](#))

[대화할 수 있는 용기] chap3.

죽음과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슬픔의 시간, 애도의 대화

2022 김근태기념도서관 인문학 '경청' 시리즈 마지막 강좌는 죽음과 삶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며 이별하고 있을까요?
좋은 이별을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2. 4. 9 ~ 4. 30(매주 토) 오후 2시 **4회차** 강연

김근태기념도서관 2층 공간, 마루(다목적강당)

성인 누구나, 20인 선착순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1회차

4. 9(토) 오후 2시

>>> 박태호 (장례지도사)

「채비장례란?」

- 좋은 죽음이란?
- 채비 장례에 대해
- 실전 장례 준비

2회차

4. 16(토) 오후 2시

>>> 김기혁 (홍보전문가)

「추모식 준비1」

- 나의 생애사 정리하기
- 사진 정리와 영상 구성 짜기
- 사진별 멘트 정리 등 영상 만들기

3회차

4. 23(토) 오후 2시

>>> 전승욱 (채비 플래너)

「추모식 준비2」

- 사전장례의향서 작성하기
- 영정 사진 선택, 유품전시, 물품 목록 작성
- 추도사와 부고 문자 쓰기

4회차

4. 30(토) 오후 2시

>>> 박태호 (장례지도사)

>>> 전승욱 (채비 플래너)

「가상 추모식」

- 고인 정하기와 유품 가져오기
- 메모리얼 포스트 작성하기
- 가상 추모식 진행

2022. 3월

김석균 조합원 빙모상
 서상권 조합원 모친상
 최진아 조합원 모친상
 김승택 조합원 빙모상
 윤승용 조합원 빙모상
 홍석우 조합원 조모상
 김상민 조합원 모친상

임성현 조합원 모친상
 박경숙 조합원 부친상
 이원상 조합원 조모상
 김복자 조합원 배우자상
 강명구 조합원 부친상
 이수종 조합원 모친상
 박봉균 조합원 부친상

권영구 조합원 모친상
 조영곤 조합원 부친상
 이상진 조합원 부친상
 이성희 조합원 시부상
 손영순 조합원 부친상
 남택주 조합원 모친상
 오승준 조합원 모친상

2022. 2월

이상연 조합원 모친상
 신희순 조합원 모친상
 이상화 조합원 부친상
 박정선 조합원 부친상
 남화선 조합원 부친상
 정재민 조합원 모친상
 심금순 조합원 아들상
 남화선 조합원 시모상

조석현 조합원 모친상
 박예진 조합원 부친상
 홍문국 조합원 부친상
 김진국 조합원 빙부상
 한 준 조합원 모친상
 이주연 조합원 모친상
 김영아 조합원 부친상
 윤원철 조합원 부친상

양미선 조합원 부친상
 유대환 조합원 부친상
 박옥경 조합원 모친상
 김일태 조합원 모친상
 김재삼 조합원 모친상
 김태열 조합원 부친상
 김성한 조합원 모친상

2022. 1월

이장우 조합원 모친상
 손성희 조합원 지인상
 배병운 조합원 부친상
 김현식 조합원 모친상
 김상현 조합원 지인상
 이흥원 조합원 조카상

김성희 조합원 모친상
 권영석 조합원 모친상
 정영섭 조합원 모친상
 김무아 조합원 부친상
 박사훈 조합원 조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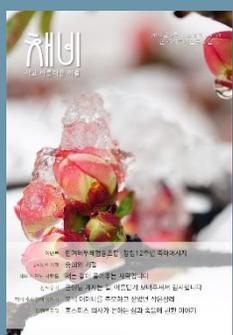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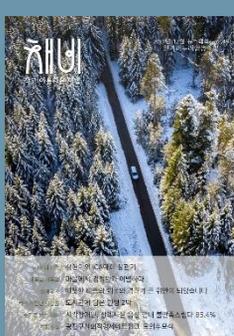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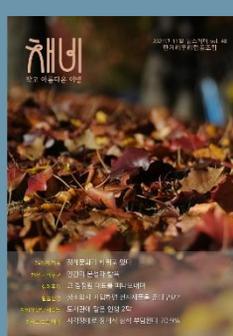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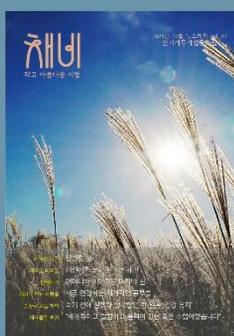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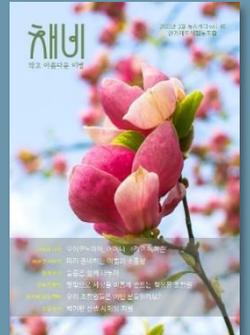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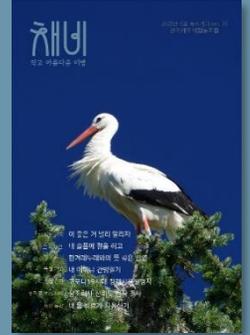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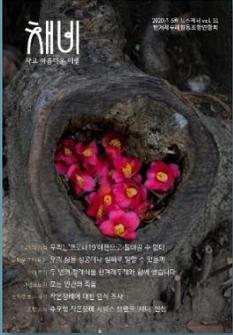
김문중 조합원 부친상
 임승환 조합원 부친상
 이정미 조합원 시부상
 김규원 조합원 모친상
 이상현 조합원 본인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